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0. 6.(화) 총 6매(본문3)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담 당 자	• 과장 심병섭, 사무관 전부남 주무관 강기희 • ☎ (031) 210-2704, 2693	
보 도 일 시	2020년 10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은?... 9자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

- 한글날 맞아 고유어 지명 분석...총 11,771개 중 경북 2,577곳으로 최다 -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고시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9자로 이루어진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라고 밝혔다.
 - * 고시지명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
 -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 지명은 11,771개, 한자어는 45,961개, 혼합어 지명은 17,657개로 나타났다.

구 분	합계	경북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전남	전북
고유어	11,771	2,577	1,508	1,394	1,382	1,368	1,122	843	489
한자어	45,961	7,081	3,781	2,896	3,815	5,703	2,225	10,562	6,066
혼합어	17,657	2,923	1,499	1,649	2,877	1,842	2,218	1,917	1,233
기타	25,336	3,692	2,240	1,501	3,295	3,177	2,459	3,680	2,988

구 분	제주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서울	부산	세종
고유어	239	206	205	151	90	63	58	45	31
한자어	315	533	302	591	397	552	396	502	244
혼합어	282	243	306	176	145	93	109	73	72
기타	336	198	379	240	278	229	154	125	365

- * 고유어 : 지명에 한 음절이라도 한자가 있으면 제외하고 분류한 지명
- 한자어 :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 한자로 표현되는 지명
- 혼합어 : 고유어와 한자가 섞인 지명
- 기 타 :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분류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지명

- 고유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새터’이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을 비롯해 전국에 273개가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이 있다.
- 전국의 한자어 지명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이 26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신기(新基, 192개)’, ‘평촌(坪村, 138개)’, ‘송정(松亭, 126개)’, ‘내동(內洞, 119개)’ 등이 있다.
-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이다. ‘점(店)’은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유어인 ‘말(마을)’과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점말(店말)’과 ‘장터(場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명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을의 경우 ‘말’, ‘골’, ‘실(室, 實)’, ‘촌(村)’, ‘뜸’ 등으로 나타나고, 산의 경우에는 ‘뢰’, ‘봉(峰)’, ‘오름’ 등으로, 고개는 ‘치(峙)’, ‘티’, ‘재’, ‘현(峴)’, ‘령(嶺, 峯)’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중,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127개로, 촌(村, 2,701개), 말(2,049개), 곡(谷, 1,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이 들어간 지명보다 월등히 많으며, 6,127개 중 ‘뒷골’, ‘안골’ 같은 고유어는 2,854개가 있다.
- 산을 나타내는 지명중에 전북 고창군 심원면의 ‘활뢰(弓山)’를 비롯해 ‘뢰’와 제주도의 기생화산 ‘오름’이 들어간 고유어 지명은 161개로 한자어 산 지명 3,985개나 혼합어 지명 823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또한,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지명은 ‘남산(南山)’이며 101개가 있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쓰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되고 있다.

□ 최근에는 외래어 지명을 사용하는 등 지명을 상품화하고 상업화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고유 지명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지명도 많이 있다.

○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장승’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39곳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지명에 그대로 녹아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장승은 현재 순우리말인 고유어임(국립국어원)

□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한글날을 맞아 전국의 지명을 유형별로 파악해 본 결과,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고유어 지명보다 한자어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면서,

○ “앞으로는 고유어 지명을 지명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지명유래집('08.~'13.): 조선시대 지리지, 고지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명의 변천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권역별(중부, 충청, 전라·제주, 경상편) 지명유래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강기희 주무관(☎ 031-210-2704)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